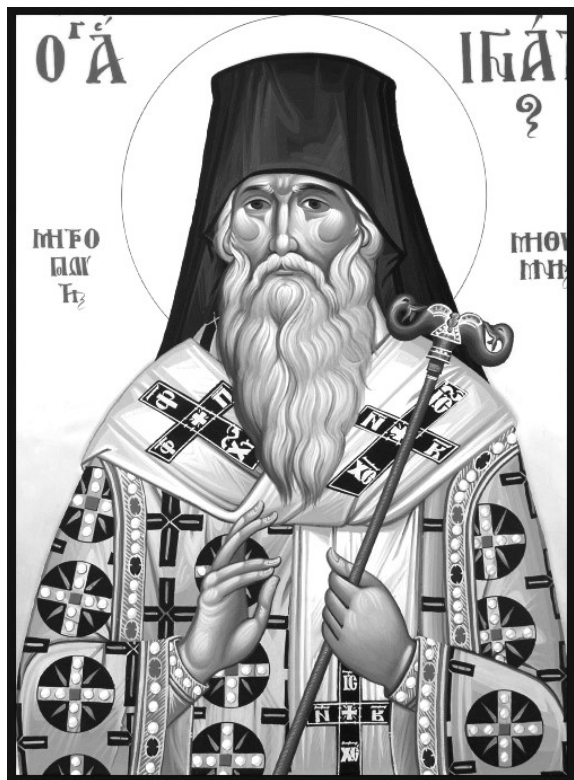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41째주 (10월 10일)

정교회 주보



성 이그나티오스 미팀나 주교

루가 제 3주일

에블람비오스, 에블람비아 순교자

제 7조, 조과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7조 부활 찬양송 / 82, A 217

•주일 입당송 / 14, A 42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성당 찬양송

•주일 시기송 / 85, A 226

•사도경 : II고린토 6:1~10 / 봉독서 257

•복음경 : 루가 7:11~16 / 123, B 65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이그나티오스 미팀나 주교

우리 교회에서 10월 14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이그나티오스는 1492년 미틸리니 섬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인 엠마누엘 아갈리아노스는 미틸리니의 사제였습니다.

이그나티오스 성인은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지혜롭고 경건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많은 아이들을 낳았지만, 당시에 그 섬을 뒤덮은 한 유행성 전염병에 의해 메토디오스라는 아들 외에 아내와 모든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성인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

하면서 공부와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터키가 섬을 점령하는 동안 성인은 여러 수도원에서 봉사하였고, 포로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자선을 베풀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봉사하였습니다. 성인의 이러한 큰 덕과 거룩한 삶을 통해 1531년 미팀나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이그나티오스 성인은 주교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훌륭한 목자로서 그리스도의 양떼를 잘 돌보다가 평화롭게 1566년에 안식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용기

여러분은 우리 삶에서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는 용기 있는 대처가 필요한 어려운 시기를 언젠가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은, 우리가 처한 출구가 없는 이러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어디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로 나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마태오14: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네 가지 형태의 용기에 대해 살펴보시다. :

1. 우리 자신에 대한 용기. 우리 자신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단점들은 노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극복할 수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나약함, 만성질환이나 장애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용기를 가지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2. 미래에 대한 용기. 미래는 불분명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신앙인은 미래를 용기와 함께 대처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시편

23:4)라고 찬양할 것입니다.

3. 실패에 대한 용기. 실패 없는 삶은 없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우리의 실패들을 용기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한번, 또는 여러 번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우울증에 빠지게 방치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용기를 내어라”라고 권유하십니다.

4. 우리 모두가 걷는 부패, 질병, 죽음으로 향하는 경로에서의 용기. 이 길에서는 한 어린 아이의 죽음처럼,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고, 시기상조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로부터 나오는 용기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내외부의 다양한 공격에 무자비하게 당할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읍시다. :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겠지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현명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루가4:12)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용기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방향타이시기 때문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쓰레기차의 비유



한번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차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할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택시기사가 노련한 솜씨로 핸들을 틀어 급정거를 하였기에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더 놀라왔던 것은 잘못을 한 상대방이 도리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를 때, 택시기사가 보여준 침착하고 평온한 태도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으며 그 상대방을 정중한 태도로 대하였고, 그로써 험악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저는, “저 사람이 당신 차를 들이받을 뻔하였는데 당신은 도리어 그를 친절히 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라고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제 눈에는 많은 사람이 쓰레기차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쓰레기’, 곧 비통함과 분노, 미움, 욕구불만과 좌절감이 가득 찬 마음으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쓰레기’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 그것을 버릴 장소가 필요하게 되고, 불행하게도 때로는 그 곳이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 상대방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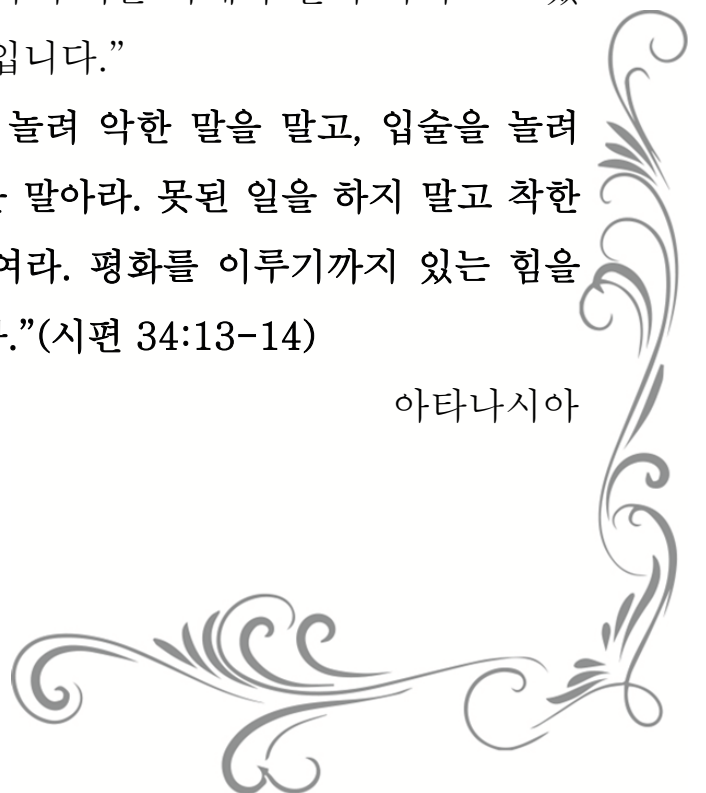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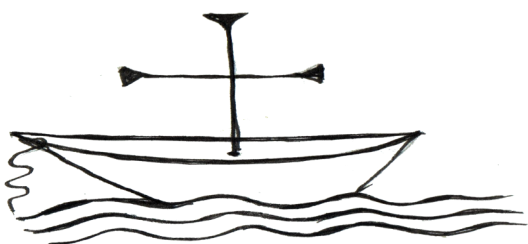


해서 그냥 웃음을 지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그를 맞아주고, 그의 안녕을 빌어주고는 떠나가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쓰레기’를 당신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서, 일터의 동료나 가족, 친구, 낯선 이에게 퍼트리지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어떤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으며, 그저 쓰라린 아픔만 남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래와 같이 타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혀를 놀려 악한 말을 말고, 입술을 놀려 거짓말을 말아라.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시편 34:13-14)

아타나시아





대교구

■ 한반도 종전평화선언 서명운동

한국정교회 대교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종전평화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서명해주시면 전세계 그리스도교인들의 서명을 합산하여, 한국 전쟁 관련국 정부와 UN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정치적인 것이 아닌, 민족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교회는 모든 종류의 전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성직자 회의에서도 논의하고 강조된 것은 서명을 통해 한반도에 종전이 선언되기를 기원한 것으로, 여기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한국정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은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각 지역성당을 통해서 실행되었습니다.

구세주 변모 수도원

■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들 축일

지난 10월 3일 주일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들 축일을 맞이하여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축일 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2일 토요일에는 대만과 아르토클라시아 예식이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의 집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일인 3일에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그리고 요한 박인곤 보제의 집전으로 조과와 성찬 예배가 거행되었고, 소티리오스 대주교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축일을 맞이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성인들의 중보로 소티리오스 대주교와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 세례를 축하합니다

10월 2일(토)에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니끼 김춘일 교우가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가 집전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